

9. 풍성한 삶의 원리: 환란을 유익으로 바꾸라!

본문: 창세기 40:9-15, 23

- 9)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 10)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 11)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 12)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 13)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 14)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 15)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 23)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환란을 바라보는 관점

환난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견뎌야 하는 것이고 통과해야 하는 것이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누군가는 환난에서 유익을 찾지만 누군가는 환난에서 넘어져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상방된 시각이 존재합니다. '문제'앞에서도 동일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볼 수도 있고,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인생이 곤고해 지지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때 '유익'이 찾아옵니다. 문제란 대부분 우리 인생에서 참 난감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예기치 않은 때에 예기치 않은 곳에서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과 같다는 점에서 난감합니다.

문제가 난감한 것은,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온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인생은 '문제의 종합 세트'같다고 표현해도 좋을 듯합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 팔려가고,

팔려간 곳에서 최선을 다해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 하지 않으려고 주인이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성 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며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요셉이 환난을 만날 때 마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을 경험했다는 것이며, 형통함과 유익을 경험한 후에도 환난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환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 오는 것이라면,

환난이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유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환란을 유익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풍성함의 원리는 '환란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피터 월슨의 책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를 보면서 공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사실인데,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누군가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문제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에 공감하지 않든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용할 수 없는 10%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도 사실은 90%의 긍정적인 요소보다 10%의 부정적인 요소에 집중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받은 상처로 인한 피해의식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문제들에 집중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5절 말씀을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늘 상대방의 문제를 보는 관점이 나의 문제를 보면서 관계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지 않을까요? 피터 월슨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동의하지 않는 10%에 집중하지 말고, 서로 동의하는 90%에 근거해서 관계를 세워보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필요할 때는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월슨의 말을 빌어 환란을 보게 된다면,

사실 우리 인생에서 환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란보다는 환란을 당하지 않는 순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환란이 실제보다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별로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불쑥 찾아오는 환란이라는 놈이 우리 인생을 건드려 놓고 헤집어 놓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예외 없이 ‘환란’이라는 과정을 거쳐 간 사람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환란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과 환란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라는 것 역시, 우리 인간들이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도 이유가 없이 행한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 그의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의 삶에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 속에 있는 것이죠.

백신’(vaccine)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소를 뜻하는 라틴어의 ‘바카(vacca)’에서 유래한 말로 1783년 에드워드 제너가 의학 논문에 사용하면서 시작된 말입니다.

제너가 살던 시대 유럽에 천연두가 휩쓸고 지나가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아이의 80%가 사망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당시 유럽에서 이 병이 돈다는 소문이 돌면 문을 닫고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방법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제너는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병을 피해 숨지 않고 오히려 문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항체를 기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영공서는 소가 걸리는 약한 천연두인 ‘우두’(cowpox)에 걸렸던 젖 짜는 여자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제너의 계획은 사람들을 천연두 종기에서 짠 고름에 노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말이죠, 놀랍게도 제너의 처방에 따랐던 사람들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천연두에 걸려도 멀쩡했습니다.

이런 ‘백신’의 발견 덕으로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최악의 질병을 치료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앤디 스탠리 [부자로 살기보다 부요하게 살라] 중에서)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당연한 생각들이라고 여겨지지 않나요?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믿음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분이 행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인데 말입니다.

겸손하게 그분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유 없는 고난' '목적이 없어 보이는 악'이란, 결국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일이라면 우리 인생에서 분명한 유익이 있지 않을까요?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 지혜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 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알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 알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사도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 22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실체가 없는 가상의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보다 귀한 것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한다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환난의 유익'을 아는 사람이 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까요?

'이해'가 아닌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마더 테레사는 기꺼이 인도에서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는 삶을 살며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싸구려 여관에서 불편하게 보낸 하룻밤"처럼 이 땅에서 겪는 최악의 고난도 천국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현재 당하는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그 고통이 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J. D. 그리어의 글을 조금 더 소개 하겠습니다.

현재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세상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세상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고 나면 눈앞의 고통을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

C. S. 루이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을 단순히 행복을 위한 곳으로만 본다면 도무지 참기 힘들다. 하지만 훈련과 교정을

위한 곳으로 본다면 그리 나쁘지는 않다.”

풍성한 삶의 위한 원리: 환란을 유익으로 바꾸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풍성한 삶의 원리인 ‘환란을 유익으로 바꾸다’는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술 말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억울한 구절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귀한 꿈 해석을 해 주고 술 말은 관원에게 그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신신 당부했는데 말입니다.

‘그를 잊었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다면 인생이 비극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잊혀짐의 시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timing’이라는 말이 있죠. 술 말은 관원이 잊어버린 시간들로 인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이 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꾴서 자기가 나일 강 가에 서 있는데

이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상상력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잊혀진 2년의 시간이 왜 중요한지.

먼저 40장으로 돌아와 술 말은 관원이 왜 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1-3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말은 자라 떡 굶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직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말은 관원장과 떡 굶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무슨 일로 인해 벌어진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술 말은 관원과 떡 말은 관원이 ‘범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로 인해 바로가 노하여 이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인 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흘 후에 있을 바로의 생일에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고 하 사람은 목이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왕이 먹는 술과 떡을 관장한다는 것은 ‘하인’의 일이 아니라 왕의 ‘측근’들이 맡는 일입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중요한 자리였기에 권력의 자리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복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왕의 신임을 얻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만 2년이라는 시간동안 술 말은 관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신뢰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환란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timing’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난 해 성지순례에 가서 주일을 갈릴리에서 선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 때 말씀을 전한 엄태호 목사가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장면이죠.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생각해 보세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의 현장으로 다시 보내시는 주님의 명령을 말입니다.

실패의 자리로 다시 보내셔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며 엄태호 목사가 그런 간증을 하더군요.

만나교회에 오기 전 문막에서 목회하던 시절 실패했다고 생각하던 목회의 자리가 생각나서 말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제가 이천 로댐성전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실패의 기억 때문에 두려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실패의 현장으로 다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셨노라고 말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또한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불러왔던 때, 요셉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1-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피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법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환란을 유익으로 바꾸는 시간들 속에 요셉의 신앙과 신실함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상상의 날개를 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특별히 배경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감옥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간수장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제반 사무를 다 맡길 정도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오는 곳이니 권력을 가진 자들도 많이 왔을 텐데 요셉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 말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 2년이나 지나서 요셉을 찾았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요셉의 성실함이 환란을 유익으로 바꾸는 자리를 가능케 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환란의 유익은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큰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함으로 옥에 갇히고,
꿈을 해석해 주었으나 2년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시간들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점점 가깝게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형통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아니 그 형통함이 귀하게 느껴지지,
보디발의 노예로 있으면서 형통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감옥에 갇혀 간수장에게 잘 보이는 형통함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형통함은 형통함입니다. 작은 일의 형통함이 없었다면 큰일의 형통함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알려진 '본죽'이 최복이 대표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 본죽 최복이 대표(극독방송 온더로드 2017.10.26.)

https://www.youtube.com/watch?v=a42SnyoR_ml



넘어질 대로 넘어져 본 본죽 최복이 대표.

본죽, 본죽 & 비빔밥, 본도시락, 본설렁탕, 본우리반상 등 지금은 매장이 1700개가 넘습니다.

가난했던 부부. 보증금 백만 원에 월 오만 원짜리 집으로 시작해서
출판사부터 학습지회사, 통신판매업, 인삼제조판매업, 순시물성 화장품 대리점 본사도 했었지만
IMF가 터지면서 연쇄부도를 일으키고 신용불량자, 빚쟁이가 되어서
도망을 다녔어요.

그때 정신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자살충동도 일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하는 절망감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던 중 호떡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때에는 포장마차 하나가 전 재산이었어요. “하나님, 오
늘 이거 다 팔게 해주세요.”하고 기도하면서 반죽을 했어요. 무릎 경영이 그 때부터 시작되었어
요.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때에도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단속반에 포장마차를 빼앗기기도 했거든요. 다 팽개치고 포장마차를 집어가면 덜어진 반죽을 주우면서 뜨거운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나눠주고, 귀어주고, 베푸는 선한 사람이 되겠다고 회개도 많이 하고, 다시 한 번만 기회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기도문과 성경쓰기 한 노트들이 수십 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에 담았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서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리 감사하는 거죠. 됐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까지 간 거죠.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이 퍼즐조각이라면 그 시간에 배운 모든 것들이 '본죽'이라는 브랜드와 노하우를 만드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 시간이 최악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고 계신 거죠.

우리는 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실패하고 낙심하죠. 그런데 인생의 작은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 인생 전체를 비관하지 마세요. 그 넘어짐은 얼마든지 더 중요한 것으로 바뀔 수 있어요. 고난이 오히려 내 인생을 더 성장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란이 유익이 되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영적성숙의 시간들은 환란을 통해서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될 듯합니다.

야구선수 이승엽의 컨디션 조절

홈런타자 이승엽 선수의 어느 인터뷰를 인상적으로 기억한다. 그는 몸 상태가 너무 좋은 날엔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풀지 않음으로써 의도적으로 그보다 못한 상태가 되게 한다고 말했다. 가장 좋은 성적을 낼 때는 몸 상태가 최고조에 이를 때가 아니라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였단다. 컨디션이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투수를 알잡아 보게 되고 어떤 공이든 쳐 낼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이 생겨서 도리어 선구안이 흐려진다. 그 결과 유인구에 속아 쉽게 방망이가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몸이 정상이 아니면 마음을 쉽게 다잡을 수 있다고 한다. 긴장을 잃지 않고 투수를 존중하면서 공을 끝까지 보고 치게 되니 더 좋은 타구가 나온다.

어느 정도의 두려움과 수치심, 불안과 죄책감은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을 타자로 인정하고 그들과 어울려 살도록 도와주는 '안전 계기판'이 된다.

<박대영, 목상의여정, p178-179>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때로 정상적이지 못한 환란의 시기에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이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지만 어떤 이는 고난의 시간에 더욱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적극적인 고난'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유익이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돈을 들여 스페인의 '산티에고'길을 순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걷습니다. 다음 목적지까지 가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시작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없으니 걷다가 하나님을 목상하고 영적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환란의 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